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국내외 돼지고기 시장 변화



허 덕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머리말

우리나라와 칠레간 자

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비준 동의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것은 칠레가 처음으로 앞으로 일본, 중국, 멕시코,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와 체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제 FTA는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과 함께 개방화의 양축을 구성하여 진행될 것이다.

WTO가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무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다자주의의 원칙을 존중하는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라 할 수 있다. 비록 WTO/DDA협상 타결이 지연되더라도, WTO 체제 내의 양자간 협상에서 양국간 무역에 관한

협상이 뒤따르게 되지만, FTA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두 나라 또는 지역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체제인 것이다. 개방의 강도로 볼 때 FTA가 기본적으로 무관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더 클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 협상의 경과

한국과 칠레간 FTA를 추진키로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4개월 전이었다. 1998년 11월에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FTA를 추진키로 하고, 1999년 12월부터 정식으로 협상을 시작하여, 2002년 10월 24일 한국과 칠레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었다.

칠레와의 FTA 협상과정 역시 결코 순탄치 않았다. 칠레를 첫 번째 FTA 대상국으로 선정하는데 대해 농업계가 심하게 반대했고, 칠레에서도 중소기업체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결국 제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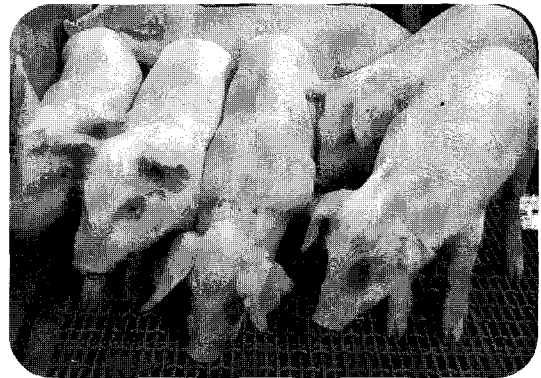
협상(2000년 12월 12일) 이후 1년 반 이상 협상이 중지되기도 하였다.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도 칠레의 금융시장 개방문제로 또 다시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협상이 타결되고 2004년 2월 16일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농업인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격한 모습까지 보였다. FTA 체결이 세계적 흐름의 대세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칠레간의 FTA 협정의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분야는 자동차나 IT기술산업 등인데 비해 농업부문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분야였기 때문이다. 농업은 국가적 이득을 위해 버려진다는 피해의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119조원 농업지원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대책이 수립되기는 하였지만, 농업인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 같다.

3. 한·칠레 FTA 체결의 주요 내용

한·칠레 FTA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관한 중요한 특징은 민감한 품목인 사과와 배, 그리고 쌀의 21개 세부품목을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외의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을 관세 철폐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대신, 점진적 철폐와 일부 극히 민감한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칠레도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체 품목의 94.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할당량(TRQ: Tariff Rate Quota) 제공과 DDA 이후 재협상, 16년내 관세철폐, 계절관세 부과 등 다양한 방



● 칠레의 돼지 사육두수는 대략 250만두 정도로, 우리나라 양돈 규모의 30% 정도이다.

법을 제안하였고, 칠레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계절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은 포도 1개 품목이며, 10년간 11월에서 4월까지만 관세를 철폐한다. TRQ품목에는 축산물 중 쇠고기와 닭고기, 유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400톤, 2,000톤, 1,000톤의 할당량(Quota)이 정해졌다. 양적으로 그리 크지 않아 시장에서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축산물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DDA 협상 이후 논의기로 한 품목 중 축산물은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 오리, 분유, 버터, 계란, 난황, 꿀, 치즈(신선, 커드 등), 밀크, 크림, 녹용 등이다. 16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축산물은 조제분유가 있으며, 7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에는 칠면조 고기(TRQ 600톤 제공)가 포함된다.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에는 말, 양, 닭, 칠면조, 기타 동물, 식용 설육, 알, 로알제리, 꿀, 발굽, 사향 등이 있다. 중우, 중돈, 종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호밀 등 224개 품목은 협정 발효와 함께 곧바로 관세가 철폐된다.

4. 칠레의 양돈산업

지피지기라는 측면에서 칠레의 양돈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칠레는 한반도의 3.7배 정도의 면적을 지닌 나라이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1/3 정도인 1,545만명이 살고 있고, 2001년 기준으로 교역규모는 수출 174억 달러, 수입 159억 달러 정도 규모이다. 국민소득도 5,000불 이하로 우리나라에 비해 아직 크게 낮다. 199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다가 1998년 잠시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성장세로 들어섰다.

칠레의 농림업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나라의 모양새가 길어 과실재배에 적당하고 연 강우량이 120~1,200mm의 지중해성 기후인 주요한 농업 및 목축지대가 있다. 여기에서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 등 광산물을 다음으로 농축임수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칠레의 축산업은 낙농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농가에서 돼지와 닭은 거의 사육되고 있지 않지만, 돼지는 3대기업이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 구조로 직접 또는 계약사육을 통해 거의 100%를 공급하고 있다. 칠레의 3대 양돈기업이란 아그로 수퍼 그룹(Agro

Super Group)의 수퍼 세라도(Super Cerado), 프리오사(Frisona), 바자도르(Vayador) 3사이다. 칠레의 돼지 사육두수는 대략 250만두 정도로, 우리나라 양돈 규모의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중 수퍼 세라도가 가장 커서 모돈 8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프리오사와 바자도르가 각각 모돈 1만두 내외를 사육하고 있다. 아그로 수퍼 그룹은 연간 60만톤의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과 1일 6,400두를 처리할 수 있는 도축장과 함께 종돈장, 육가공공장, 수출입업체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돼지고기 수직 계열화업체로, 효율적인 돼지고기 생산과 수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만일 수출목표량이 늘어날 경우 언제든지 신속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도 우리보다 앞서 도입하였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 주의를 기울여 할 수만은 없다.

5. 칠레산 돈육수입이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칠레의 돼지고기 생산비는 그리 낮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5만톤 정도의 삼겹살과 목살 등을 수입하고 있는 만큼, 칠레산 돼지고기 가격이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양의 크히 일부 정도가 대체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칠레의 양돈산업 규모가 적어 칠레의 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 한·칠레 FTA에 의한 무관세와 WTO/DDA에 의한 관세의 차이 20% 정도가 있어, 이 차이에 대한 수입량 확대효과가 예상되어, 수입쇠고기에 의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대체가 일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육기준으로 보면 이웃 나라인 아르헨티나가 한화 환산으로 kg당 578원, 브라질이 603원 정도인데 비해 칠레는 775원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도 칠레산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단가가 냉동 삼겹살 기준으로 kg당 2.56~2.98달러 정도 되어, 미국산보다 다소 높다.

DDA 협상결과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돼지고기 관세가 14%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관세화 된다 하더라도 대략 2달러 이상에서 수입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5만톤 정도의 삼겹살과 목살 등을 수입하고 있는 만큼, 칠레산 돼지고기 가격이 다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양의 극히 일부 정도가 대체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칠레의 양돈산업 규모가 적어 칠레의 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의 소비 패턴이 냉장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송기간(45일)을 감안하면 칠레산 냉장육의 수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쇠고기, 닭고기도 TRQ물량이 소량이어서 기존에 수입되고 있는 물량 내에서 수입선 전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와 큰 연관관계는 없지만, 축산물로 취급되는 유장의 경우 국내 생산실적은 거의 없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분유는 TRQ 제공 없이 DDA 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하여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의 쇠고기 수입관세는 40% 정도이며, DDA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관세가 얼마나 인하되게 될 지는 아직 모르지만, 대략 20%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한·칠레 FTA에 의한 무관세와 WTO/DDA에 의한 관세의 차이 20% 정도가 있어, 이 차이에 대한 수입량 확대효과가 예상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대체 정도가 높은 편이고 특히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경합관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수입쇠고기에 의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대체가 일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오른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다소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6. 맺음말

비록, 칠레와의 FTA 체결로 인해 과수산업을 제외하고 양돈산업 등 축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칠레와의 FTA 체결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일본, 중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상대가 중국이나 미국, 캐나다라면 파괴력이 매우 클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입 시장에서 수입축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이 낮다면, 양돈산업은 하루라도 빨리 차별화에 성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별화에도 한계가 있다. 차별화에 의한 가격 차이가 5배, 10배까지는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화의 한계는 비용 절감으로 보충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안전성 포함)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인 것이다. **양돈**